

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정의식 생활제품안전과장(02-509-7246), 권은숙 연구사(7248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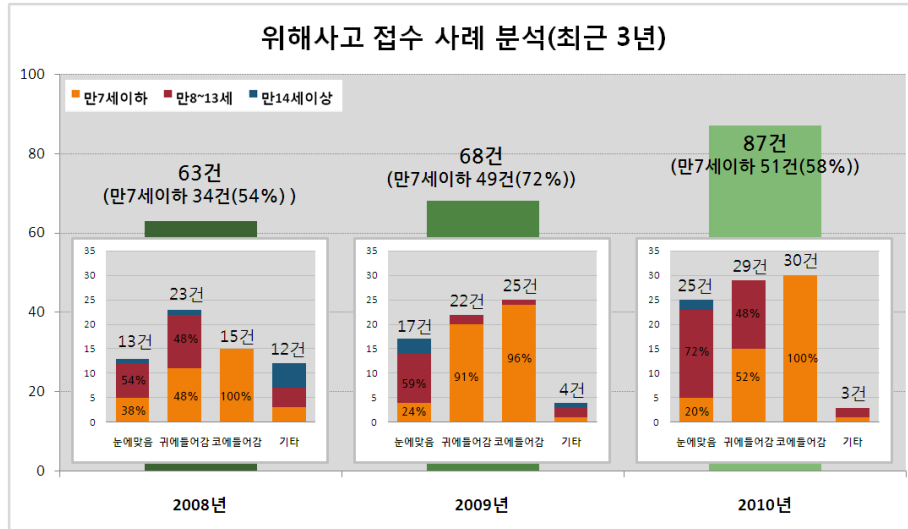
응답하라 비비탄총, 우리 이제 안전하다!! **-제품개발R&D결과 공유로 업체 자발적 참여 독려 표시사항 기준 강화-**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:서광현)은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했던 ‘안전한 비비탄총 개발’ 연구결과와 관련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인 ‘비비탄총’은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의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해외 안전기준 대비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.
 - 하지만, ‘07년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난감 무기류에 의한 안전사고 중 약 73%가 비비탄총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해사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,
 - 비비탄이 눈, 코, 귀 등의 얼굴부위에 맞거나 이물질로 들어가 병원을 찾은 경우(97%, 85건/87건)가 대부분이고, 사용 제한연령을 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접수의 절반이상(58%, 51건/87건)이 7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- 이에 비비탄총에 의한 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안전한 비비탄총 개발 R&D 과제(총괄:한국 산업기술대학교 이재학 교수)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비비탄총 업계에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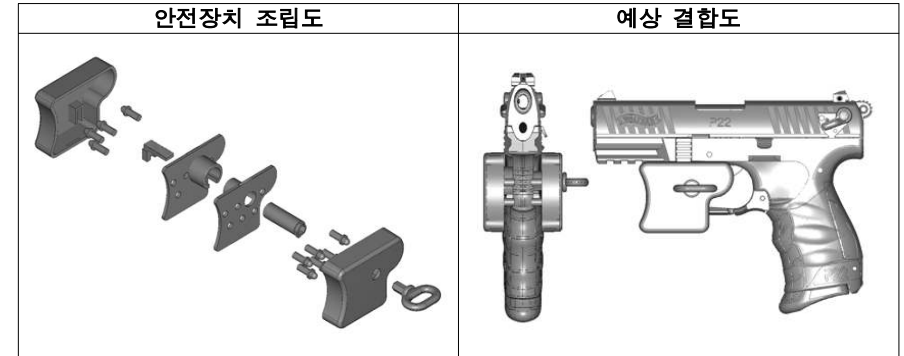
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,

- 현재 비비탄총에는 발사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건장치가 풀려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금번 연구에서는 방아쇠 부분에 장착하는 ‘이중 안전장치’를 개발하여 안전장치를 해제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총의 발사행위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,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. 특히 7세이하 어린이가 가지고 놀 경우 이 안전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위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.
- 또한, 비비탄 총알을 입에 넣어 삼킴으로서 발생하는 어린이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비비탄 총알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맛을 낼 수 있는 비비탄 총알을 제조할 수 있는 배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.
- 또한,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 사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안전기준(안)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,
 - 7세 이하 어린이의 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날개의 표면에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“대상연령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”을 표기하도록 하고,
 - 얼굴부위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중 보안경 의무 착용 관련 문구를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% 이상 더 크게 표기하도록 하는 할 계획이다.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개발된 안전장치 보급 및 안전기준의 강화,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 단속반 운영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비비탄총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진행하여 비비탄총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.

※ (그림 1) 최근 3년 위해사고 접수사례 분석



※ (그림 4) 권총용 안전장치 조립도 및 예상 결합도



※ (그림 2) R&D 과제로 개발된 ‘발사 안전장치’



※ (그림 3) 발사 안전장치 제품도면

